금주의 말씀

고린도전서 1 : 26-31

심재권 목사
무기개교회 담임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피하지 말라

이 시간에 "내게 주신 사명을 피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핑계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결핏하면 못 한다 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도 사명을 거절하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부르심에도 그는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출4:13). 이렇게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노를 발하셨습니다(출4:14). 사명 거절, 이것은 큰 죄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죽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유능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핑계할 수 없는 이유를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미련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하다고 학식이 부족하다고 절대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미련하다는 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미련한 데는 약도 없다는 속담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함이 도리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련해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주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해도 미련한 줄만 알면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일을 망쳐놓습니다. 똑똑한 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다니엘도 요셉도 바울도 에디슨도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하다고 사명에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해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27절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약한 사람들을 쓴 예가 많습니다. 바울도 약해서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여선지 드보라, 왕후 에스더, 소년 다윗, 양치기 목자, 삼손도 본래 능력 있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쓰신 종들을 보면 불치의 병에 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세도 나이 많아 인생을 정리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옛날 왕자의 신분도 권세도 정준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양 치던 목자였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핑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여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뱀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 문둥병이 되었습니다.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 성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그 후 14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족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빌4:13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을 주실 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빌리그래함 목사는 자기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빌리그래함 목사는 100년에 한 사람 날까 말까한 종교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으나 믿음도 모르고 그냥 다니기만 했으며 문제 아이로 부모와 교회에 눈엣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잭슨 목사님을 모시고 가진 부흥회에서 부흥사의 설교가 어찌나 가슴을 콕콕 찌르는지 자신도 모르게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셨든지 땅바닥에 꿇어앉아 일주일간을 울었습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빌리 그래함아 넌 말씀 전파자가 되어라."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말씀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전하고 멸시받고 없어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꿈이라도 꾸시기 바랍니다. 변신은 무죄, 꿈꾸는 건 자유입니다. 어느 누가 꿈꾸는 것까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꿈부터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꿈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양치고 있는 모세에게도 출애굽의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가졌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 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못 한다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귀히 쓰임 받는 귀한 일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 김창남 화백 그림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100. 성화(롬6:1~23)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우리가 죄를 많이 저지르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돋보이게 들어난다고 해서 그만큼 더욱 더 담대하게 죄를 범하겠는가? 이게 정당한 용법인가? 아니다, 그것은 오용이다. 따라서 사도는 이 따위 생각에 경악을 금치 못한 나머지 "그럴 수 없느니라"고 소리쳐 외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악마의 최대 시험을 받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마4:10)하시며 제기하신 바로 그 반론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죄의 꼴을 갖추었거나 실제 무도덕에로의 문을 여는 의인은 그것이 제 아무리 특이해 보이고 그럴싸하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돋보이게 할지라도 재빨리 정색을 하고 이를 거절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경건함에 속한(딛1:1) 진리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논조는 강력하다. 첫째는 성화를 권고하면서 그 특성을 들어 이야기하고 둘째는 이 권고를 뒷받침하는 동기 곧 이론을 제시하면서 그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서 성장하는 것이다.

/그림=김창남 화백 · 글=김승원 목사

교육

홍기범 교수
· 한국창조과학회 광주전남지부

종교전쟁(15)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자들과 이를 용납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문자적 의미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과학(진화생물학)을 무시하는 '반지성주의'라고 매도하는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많다.

그 중에 진화론을 믿는 목사들보다는, 진화를 믿는 신학자들,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자신의 진화론적 또는 유물론적 신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더 많으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생계 문제에 목회자들보다는 덜 민감하다.

마크 A. 놀(1946.7.18.-)은 자신의 저서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문자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반지성주의로 매도한다. 진화론을 배격하고 창조론을 수용하는 것을, 과학을 무시하는 반지성주의로 매도한다.

진화론은 절대 과학이 아니다. 뉴턴 역학은 유신론자, 무신론자, 기독교인, 이슬람교인, 공산주의자, 자본주의자, 자유 민주주자, 전체주의자 모두에게 진리이다. 그러나 진화론은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의 누구라도 자신의 믿음과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과학과 지성이라는 미명 하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성경을, 세속 가설 아래 굴복시키려는 시도가 번져가고 있다. 특히 인간의 영혼과 정신, 창조의 역사, 인간의 죄성과 구원의 본질을 다루면서, 성경의 절대 진리와 상충하는 신경과학, 심리철학, 진화심리학 및 세속 우주론의 이론들이 강연회와 패널 토론이라는 형식을 빌려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다.

[1] 세속 학문을 성경 위에 두는 학자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경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과 충족성을 명확히 선포한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세련되고 과학적 탈을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대체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골로새서 2:8)

학자들에게 부여된 지식과 입술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증언하라고 주신 도구다. 그러나 자신의 전공 학설-예를 들어 인간을 단지 뇌세포의 화학적 반응으로만 보거나, 영혼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세속 철학 및 신경과학 가설-을 성경 말씀보다 우선시하고 이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행위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재단하려는 자들의 지혜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임을 경고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린도전서 1:21)

그리스도인 학자라는 타이틀은 하나님 말씀을 세속 학문에 맞추어 비틀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 가르침을 유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2] 양 떼를 세속 학설의 위험에 노출시킨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

교회 지도자들과 파수꾼 된 당회는 교회의 강단과 모임을 거룩하게 지킬 사명이 있다. 거짓 진리와 성경에 반하는 사상이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분별하고 막아서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진리 대신 세상의 유행하는 학설과 인간의 학문적 담론을 교회 안에 들여와 교인들을 비성경적 사고로 인도하는 것은 양 떼에게 독이 든 풀을 먹이는 것과 같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거짓 지식과 모순된 주장을 경계하라고 단호히 명했다.

2016년에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선교센터에서 《뇌과학과 기독교적 인간 이해》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고 한다. 강연이나 패널 토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 1명, 교수 1명, 의사 2명, 심리철학자 1명이었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은, 마음의 기원은 뇌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작용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혼은 없다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유물론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유튜브에서 「영혼의 실존과 두뇌주의 길원평」으로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